

# 간화선은 미래불교의 대안

공부하러 하지 말고, 같이 동행하되 화두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와 더불어 의심되어진 그 갑갑함이 바로 활구의심인 것이다. 이렇게 집들여진 화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주지시킨다.

지금 화두가 들려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준다. "알약을 먹으면 그대로 있나? 몸에 들어가면 녹아버린다. 약이 몸 밖으로 간간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화두 의심도 같은 이치다. 선지식이 문제를 던졌을 때 답을 모르니까, 그 문제가 온몸에 퍼져 의심화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의심화된 것을 계속 집중하고 추궁하라. 내면으로 돌이켜 자주 살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참구할 때, 어떤 역순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럴수록 화두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안국선원에서는 화두 참구하는 수행자를 향해 "머리에 붙은 것처럼 공부하라" 혹은 "가시 달린 쇠 채찍을 맞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뼈저리게 공부하라"는 입장을 그대로 공부 중에 수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독려한다. 또 수행자를 격발시키기를 "생사를 걸고 은산철벽을 깨트리려는 수행자가 무슨 거문고 줄을 고르듯이 앉아 있을 여유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수행자라면 거문고 줄이 끊어져도 좋다는 식으로 참구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참고로 많은 수행자들이 따르고 있는 '거문고 줄 고르듯이 하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팽이를 칠 때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때려서 최선을 다해서 정중동(靜中動)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일단 정중동이 된 뒤에는 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처럼, 거문고 줄 고르듯이 하라는 말이다.

수행자는 시종일관 답을 찾는데 혼신의 힘을 경주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공안의 문제는 이미 제시했는데, 왜 답을 찾는 일을 하지 않느냐?"이다.

일념이 만년 되도록 집중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보면 정신적인 벽이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때 머리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온몸으로 그 벽을 향해 더욱 더 화두에 집중해서 부딪쳐가야 된다. 집중하면 할수록, 공부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어떤 방해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화두에만 집중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만일 화두에 집중하지 않고 방해 받는 것을 애고 공부하려면 방해는 없어지지 않는다. 방해가 일어나면 지어지지 않게 내버려두고 화두에 집중하



〈현대불교 자료사진〉

가벼운 것이 마치 나무통을 맨 데가 '팍' 하고 터지는 것처럼 문득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

대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 일단의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갑갑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텅 비게 된다. 온 몸과 마음이 새의 깃털보다 가볍고, 앞뒤가 탁 트인 것이 끝간 데가 없이 시원하고,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일거에 내려놓아 흥분해진다.

이와 같은 시절인연은 직접 체험해야 알 수 있다. 그런 연후에 속히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 점검받고, 뒷일을 부촉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선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 바탕 위에서 화두 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타파해야 한다. 간화선은 앉아있음만으로 선을 삼는 목조선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제기됐음에도, 간화의 정신에 입각한 동정일여(動靜一如)의 수행방법보다는 단지 오래 앉아있는 것만으로 수행을 삼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목조사선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 한국

의 간화선이 만약 선정주의에 치우친다면 올바른 지견(知見)을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혜쌍수의 수행전통에도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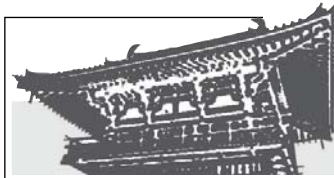
결제·해제 법문 때, 법문은 조사선 입장으로 하면서 수행은 간화선으로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수행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날 법문을 듣는 수행자들에게 간화선에 대한 활발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활구를 의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화두참구를 지도할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 밝은 선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종단차원에서 간화선 수행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수행공간을 마련하고 간화선 연구원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어떤 수행보다도 간화선 수행이 한국불교의 기복적이고 비불교적인 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불교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간화선과 화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참의심을 불러일으켜 올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차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의 수행체제가 보다 완벽하게 구비될 때, 한국불교 세계화의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며, 세계인에게 간화선 수행을 통한 정신적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리·주동식 기자



##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 '영이기(靈異記)'의 저자 료카이(景戒)

반승반속의 생활을 하고 있던 료카이(景戒, 생몰년 미상)는 822년 일본 최초의 불교설화집인 <일본국 현보선악 영이기(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를 탈고했다. 고대사회 속에서 펼쳐진 신화, 전설, 설화, 괴담, 사원연기 등을 전해들은 대로 모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책은 원래의 제목이 말해줄듯 불법의 핵심적 가르침인 인과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밝혔다. 상·중·하 3권 116편의 이야기는 삼보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유명한 고승으로부터 결식승, 서민, 장애자, 도둑, 귀족, 각종 동물 등 다양한 중생의 세계가 토착신과 열라대왕의 조언까지 곁들여져 극적으로 전개됐다.

이 가운데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백제인 흥제(弘濟) 선사가 신라와 당나라가 침략했을 때, 무사히 귀환하면 신불을

머니에게 산중에서 <법화경> 강의가 있다는 거짓 말을 한 뒤 산 속에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 히마로가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나무를 심는 것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거나, 그 그늘에서 쉬기 위한 것이다. 자식을 기르는 것은 그 힘을 빌려 자식으로부터 부양받기 위한 것이다. 믿고 의지한 나무로부터 비가 새는 것처럼 너는 어째서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마음을 일으키는가"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옷을 벗어 세 곳에 놓고, 장남인 히마로에게 하나를, 나머지 둘은 둘째에게 부치도록 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히마로가



〈카스가 권현 협기회(春日權現驗記繪)>의 우두(牛頭)와 마두(馬頭).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그 안으로 떨어졌다. 어머니가 뛰어들어 간신히 머리칼락을 잡았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하늘에 자식을 용서해줄기를 바랬지만 결국 히마로는 죽고 말았다. 어머니는 절에서 남은 머리칼락을 불상 앞에 바치고 추선공양을 올렸다.

이 이야기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무한하

## 무명의 승려 일본 최초 불교설화집 펴내

위해 절을 짓겠다고 서원한 후 출정해 그 가호로 약속을 지켰다는 보은담, 고구려의 학승 도등(道登) 스님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벌목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자비심으로 거둔 해골의 주인공이 원한을 풀고 보은한 이야기, 고구려계의 선행(善行) 법사가 타리도 배도 삼 강에서 관음의 화신이 나타나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설화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료카이를 일본에 정착한 한반도계로 보기도 한다.

그가 살던 사회는 기근과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던 때였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설화는 열라대왕의 사자가 오기 전 대문의 양쪽에 음식을 공양하고 환생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설화로 가난과 질병이 만성 화해 있던 고대사회의 민중의 관심이 여전히 주변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에 의해 전쟁터에 동원됐다가 불보살에게 의지한 힘으로 살아 돌아온 민중의 파란만장한 삶을 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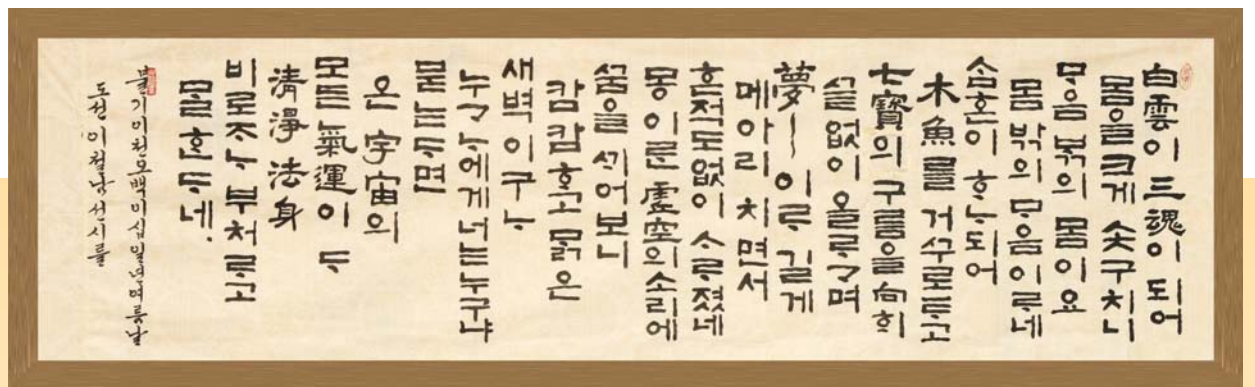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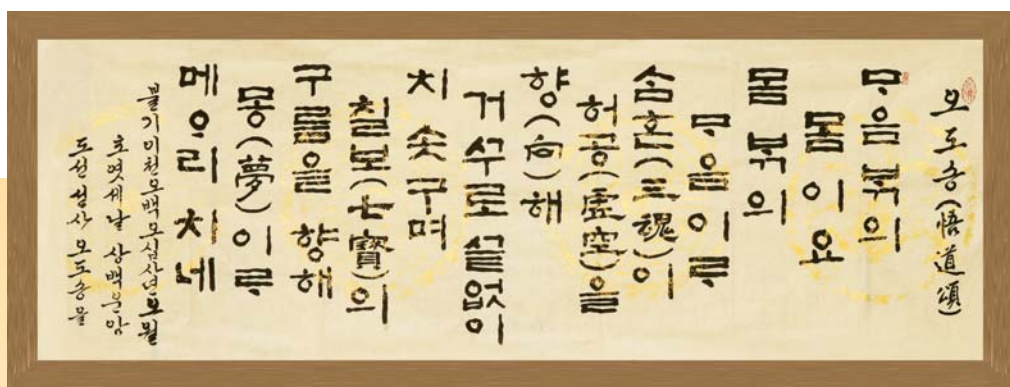
책에는 오늘날처럼 개인의 도덕성이 매를 되는 모습도 담겼다. 히마로(火麻呂)라는 사람은 국가의 명으로 변방에 배치돼 어머니와 함께 갔다. 3년의 세월이 흘러 집에 두고 온 처가 보고 싶어졌다. 그는 어머니를 죽여 모친상을 치루는 것을 핑계로 복무를 면하고 처와 같이 살고자 했다. 히마로는 어

고도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가슴이悶悶하다. 책에는 자식에게 젖을 먹이기는 커녕 음행에 빠져 지나다 죽은 여인이 한 승려의 꿈속에 나타나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이야기도 있다.

곳곳의 인과응보담을 취해하면서 료카이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다. 료카이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사도승(私度僧)으로 있다가 어느 시기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일본 불교사에서 볼 때 무명의 한 승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현대에 와서 더욱 진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책은 당시 정치를 비롯한 시대상이나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료키(行基) 등 당시의 승려들에 의한 민간포교의 활동상도 잘 드러나 있다. 선악 인과에 바탕한 자업자득의 실상은 경전의 말씀을 실감나게 증명하는 생활경전으로 설법에도 활용됐다. 후대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 12세기에 편찬된 일본 최대의 불교설화집 <금석물어집(金石物語集)>의 중요한 전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교설화들은 민중불교사의 소중한 한 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도교와 불교가 만난 피안의 세계의 깨우침의 노래



진리란 따로 있지 않아 볼 수도 잡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으나, 그 무엇보다 나눔이 없는 절대공이다. 공이란 밖으로 형상화된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이나 색 우리가 보는 허공에도 속하지 않는 참나의 본 바탕이다. 비추어 생각하고 선으로 생각함이 깨달음의 능력이며 이것을 천지광명의 공이라 한다.



남산 율선 도문 남초 도선 합장 010-3007-5989

꿈은 형색이 없는 마음으로 지은바라. 본래 상이 없건만 꿈속에 상이 실제 있는 양, 만가지 이름을 지어 부르고 천하 만물이 이름이 있으므로 모두 있는 것이요. 이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꿈속에 어찌 상이 있을 수 있으며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참나의 세계에 어찌 움직임이 있겠는가? 고로 우주의 모든 공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 눈 밝은 스승이여 꿈 속의 매아리를 보셨습니까?

#### 남산 율선 도종 창종 선포

남산 율선 도종 (남산이란 남산종을 의미하며 육조혜능이 초조이다)

창종 주 훈시

도인이 되려면 마음을 정화하라. 마음과 마음속에 삼혼이 침투하도록 그리하면 대도의 빛이 보이리라. 조사가 꿈에 무어라 하던가 그대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생로병사를 철견하고 지혜를 갖춘 스승을 찾아야 한다.

#### 인사말

나는 순수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도문을 창종하였습니다. 오직 바라노니 대도를 성취하고 묘하고 상서로운 빛을 두루 비추고, 다 같이 이룰수 있는 복과 선을 두루 갖춘 원만한 분이 입성하길 염원합니다. (도문은 소수 정예로서 도를 갈구하는 진정한 도인의 모임입니다. 고맙습니다.)